

‘반총장’... 대선출마 가능성 열어두고 6일간 광폭행보

반기문 방한 일정 시작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제주도로 입국해 6일간의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 반 총장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4·13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여권 ‘잡룡’들이 초도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반기문 대망론’이 다시 부각되는 시점에서의 방한이다.

이 때문에 올해 말 임기만료 이후 내년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반 총장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또 어떤 인사들을 만날지 반 총장의 행보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반 총장의 방한에 들쭉거리고 있다. 북한에 대한 메시지 발신도 기대되는 분위기다.

반 총장은 방한 기간에 일본을 잠시 다녀오는 것 이외에 총 6일간 우리나라에 머문다. 제주포럼, 유엔 NGO 콘퍼런스,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안동 하회마을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제주와 TK(대구경북) 지역인 경주·안동, 경기 일산, 서울 등을 오가는 일정이다.

반 총장은 이날 오후 4시55분께 전세 기편으로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반 총장의 입국 시간은 당초 계획보다 1시간가량 지연됐다.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가 열린 터키 이스탄불에서 출발이 다소 늦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반 총장은 이날 저녁 홍용표 통일부장관 주최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이와 관련 반 총장은 제주롯데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내년 1월1일이면 한국사람이 된다”면서 “한국 시민으로

“사무총장 임기 끝난후

국민으로써 할 일 결심”

여야 정치권 시선 집중

제주·안동·경주 등 방문

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냐는 그때 (임기 종료후)가서 고민, 결심하고 필요하면 조건을 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올해 말 임기종료 이후 대선 출마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반 총장은 “제가 유엔 사무총장에서 돌아오면 국민으로서 역할을 제가 더 생각해보겠지만 지금 현재는 말은 소명성 성공적으로 맡다가 여러분께 성공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도 말했다.

반 총장은 26일 오전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제주포럼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제주포럼에 참석하는 전직 외교장관들과 조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반 총장은 29일 오전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6 국제로타리 세계대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경북 안동으로 이동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회마을을 방문한다.

이후 경주로 이동한다. 반 총장은 체류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경주화백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유엔 NGO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과 기자회견을 한다. 반 총장은 당일 인천공항을 통해 6일간의 체류 일정을 마치고 출국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연남뉴스



반기문 UN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해 준비된 의전차량에 탑승하기 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남뉴스

“대선 당연히 나서야” “태풍의 눈 될 수 없다”

여권은 띄우고 야권은 견제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방한해 첫날의 ‘광폭 행보’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으로 술렁이는 분위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반 총장에 대해 견제구를 날리는 등 ‘평가절하’ 나섰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반 총장의 대권 도전에 대해 “당연히 나서야 한다”면서 “세계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유엔 사무총장의 10년 경험과 전세계 정상들과의 인맥을 활용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부러움을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반 총장은 아주 강한 권력지지를 갖고 있다. (권력의지가) 101%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은

이날 ““정국 태풍의 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한한다는데 태풍의 눈일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 총장 귀국은 내년 5월경으로 예측되는데 출마 질문은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다보면 지지율만 까먹으니 밖에서 머물며 신비주의 스탠스를 취하고 안에서 대망론을 불지핀다는 시나리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오전 YTN 신문의 출발 새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엔에서 일반적으로 4~5년 정도 지나야 정부직 맡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자존심이 있으므로 유엔 결의문 정신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남뉴스

‘묻지마 살인’ 해법 어디서 찾아야 할까



(155) 불안

알랭 드 보통(1969~)은 에세이집 ‘불안’에서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느낌,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때 받는 그 느낌, 이것이야말로 불안의 원천”이라고 한다. 한발 더 나아가 불안의 원인으로 사랑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을 꼽았고,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라 제시한다.

알랭 드 보통의 책을 읽으니 가끔씩 엄습해오는 나의 불안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헤아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화장실 살인’ ‘묻지마 살인’ ‘여성 혐오’ 등으로 뒤숭숭해진 사회 분위기가 불안의 해법은 무엇이어야 할까 생각해 본다. 무엇이 답일 수 있을까? 분노와 폭력의 언어가 난무하고 갈수록 강박해지는 현실이 참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하다.

에르바르트 뭉크(1863~1944)의 ‘비명’(1895년 작)은 고뇌로 가득한 현대인의 불안과 소외가 투영된 상징적인 그림으로 유명하다. 공포 영화에서부터 만화, 대중문화의 여러 영역에서도 방대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 판화작품은 모든 선들이 소리처럼 울고 있는 얼굴



뭉크 작 ‘비명’(1895년 작)

을 향해 흐르고 있어서 화면 전체가 비명 소리의 고통과 공포에 가담하고 있는 것 같다. 동그랗게 크게 뜬 눈, 움푹 패인 뺨, 자기 비명 소리에 놀라 귀를 막는 모습...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불확실한 절규가 우리 귓전에 휘몰아치고 있어 더욱 불안한 느낌이 고조되는 것 같다.

노르웨이 출신 뭉크의 ‘비명’은 뭉크라는 이름보다 오히려 친숙하다. 직접적이고 극적이며 강렬한 이미지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뭉크의 ‘표현주의’는 ‘비명’이란 제목의 회화, 판화 작품들로 각인되어 있지만 실제로 뭉크는 고뇌의 외침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에로티시즘, 멜랑콜리, 사랑, 슬픔에 대한 감정을 회화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뛰어났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더민주 지역위원장 공모...당·대권 후보 조직 장악 물밑 경쟁

전대 준비위원장 오제세

총괄본부장 정장선 선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전국 지역위원장 공개 모집에 나서 올 하반기 전당대회와 내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당권 및 대선 후보군의 치열한 물 밑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더민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직특위) 부위원장인 이인주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직특위에서 지역위원장 후보 공개모집을 한다”며 “6월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접수를 받는다”

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전체 공모를 해서 지역위원장 선정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며 “2017년 대통령 선거를 함께 한다는 관점에서 대선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참신한 인재를 널리 공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의 전국 전체 지역구를 대상으로 지역위원장을 공모한 뒤 실사를 거쳐 7월 말까지 인선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지역위원장은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전국대의원대회)와 내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지역 대의원을 추천한다. 공모결과 당수 후보만 신청한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 지역위원장으로 선정되

며 단수후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공식으로 둘 수 있다. 복수후보가 지역위원장직에 도전한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조강특위가 직권으로 임명하거나 경선을 치르게 된다.

총선에서 당선돼 20대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은 무난히 지역위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총선에서 패배한 지역구에선 조강특위 차원의 정밀한 실사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강기정·박해자·김영록·우윤근 의원 등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의 지역위원장 복귀 여부가 관심사다.

지역위원장 공모가 시작되면서 더민주 내부의 각 계파에서는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물 밑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최대 계파인 친노·친문 진영에서 지역위원장직을 독식하는 과거의 패권주의적 행태를 보이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더민주 김중민 대표는 최근 오제세 의원을 전대 준비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데 이어 3선(30대 국회 기준)의 이찬열, 백재현 의원을 공동 부위원장으로, 정장선 본부장을 총괄본부장으로 선임하고 8월 말~9월 초 열린 전대 준비에 착수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스마일 수술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라식·라섹의 단점은 최소화! 장점은 극대화 한 시력교정수술

- 신경손상이 적어 안구건조증 감소
- 뛰어난 회복속도 빠른 일상생활 가능
- 각막을 열지 않아 외부충격에 더 안전
- 만족스러운 결과, 1.0 이상 90% 시력유지
- 우수한 시력 예측, 시력예측도 가장 우수
- 더욱 또렷하고 선명한 시력교정!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스마일/라식/라섹/ICL/백내장/녹내장/양막/눈성형/노안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법무법인 맥 설립인사

그동안 각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뜻을 모아 ‘법무법인 맥(脈)’의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반 소송업무(민사/형사/가사/행정 등) 뿐만 아니라 기업법률 자문분야 등에서도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를 신뢰하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출발에도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분야

- 민사/가사/행정 소송
- 형사소송/수사 대응
- 기업법률자문/기업회생·파산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 행정심판/조세심판/소청심사

대표변호사 조재건 서정암 문방진 노로 권오성 올림

구성원 변호사

- 조재건: 사법연수원 24기 전 순천지원 부장판사
- 서정암: 사법연수원 26기 전 광주고법 판사
- 문방진: 사법연수원 26기 전 장흥지원장
- 노로: 사법연수원 29기 전 광주지검 검사
- 권오성: 사법연수원 33기 전 광주지검 검사

소속 변호사

- 윤철호 (서울대 법학과, 사사45회)
- 박충배 (서울대 철학과, 변시 1회)
- 김경욱 (전남대 법학과, 변시 1회)
- 민양이 (경희대 정외과, 변시 3회)
- 정은혜 (연세대 법학과, 변시 3회)
- 류노엘 (조선대 법학과, 변시 4회)
- 정찬욱 (경향대, 변시 4회)

주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106 법무법인 맥 빌딩 · 전화 062)236-4000

순천분사무소 ▶ 전남 순천시 황지로 30, 거형빌딩 202호 · 전화 061)727-7099 · 팩스 061)721-4552